2019 vol.232 | 11 November

VOICEYE
voiceye.com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성명서]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테마기획
11월 4일은 시각장애인의 문자,
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인 터 뷰
가이드러너 없이 10km 완주한 마라토너 한동호 선수

포 커 스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해 그려진 미술의 세계
시각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수상작품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contents

목차 02 |

점자로 말해요 03 |
- 입동

시선집중 04 |
- [성명서]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테마기획 06 |
- 11월 4일은 시각장애인의 문자, 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인터뷰 08 |
- 가이드러너 없이 10km 완주한 마라토너 한동호 선수

포커스 10 |
-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해 그려진 미술의 세계
  시각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수상작품전

월드 리포트 12 |
- 시각장애인 스쿠버 다이버, 레이크 이리 수중 복구 단체 맴버되다!,
- 컴퓨터 동영상 강의하는 시각장애인 후스나 아민

뉴스앨범 13 |
- 제40회 전국 흰지팡이 날 행사, 성황리에 개최!
-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중증시각장애인 전통문화체험캠프 실시!,
- 제93회 한글점자의 날 기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2019 가을음악회 성료!,
- 조약 비준 4년을 돌아보며, 마라케시 조약 토론회 개최,
- 한시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무료로 실시한다!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16 |
-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대해주세요!

KOR VOICEYE
voiceye.com

11월에는 겨울로 접어드는 입동이 있는데요.
이때부터 겨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입동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입동

읽기형 ①④ ②⑤ ③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ㅆ받침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모음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약자	열	영	옥	온	옹	운	울	은	을	인	것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문장부호	:	가운뎃점(·)	말줄임표(…)		말줄임표(...)		소괄호( )		대괄호[ ]						
영어	영어시작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영어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포스트로피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ㅈ,ㅊ,ㅆ,ㅉ, 다음에 약자 영 이 올때는 ‘엥’으로 바뀐다.

[성명서]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약속을 지켜라!

제 20대 국회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2018년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맹성규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고 했는데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 등 비대면 전자기기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하였고, 박능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10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인단말기가 장애인 이용이 불편한데 복지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소홀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적절한 지적이다. 그간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2018년 국정감사 이후 과연 보건복지부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접근성 정책은 웹과 모바일 웹 사이트에서의 접근성만을 다룬다. 이는 우리나라 관련 법제도와 정책이 아직도 2000년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전자정보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가 제정되고, 정보통신제품의 종류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별표에 포함하였으며,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시각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런데 여기까지이다. 정부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모바일 앱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 지적이 되면 그저 "그렇게 하겠다”, “검토하겠다” 등의 말뿐이다. 현재의 정보접근권 관련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그 대응 또한 느리고 내용에서도 한계를 보인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모바일 기기나 스마트폰 등 터치 기반의 기기를 사용하여 유용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인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가적 책무를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보접근은 시각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실에서 고령인구의 증가는 소득, 의료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에서의 배제로 인해 초래되는 정보 빈곤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접근권을 보호 · 육성해야 할 정부가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면 그저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공수표만 난발하는 작금의 현실에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정보 취약 계층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편의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웹사이트'에서'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 이러닝 콘텐츠, 가전제품, 전자도서, 사물인터넷(IOT) 등'까지 접근권을 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5만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

1.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를 전면 개정하라.

1. 정부는 편의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웹사이트에서 확대해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러닝 콘텐츠, 가전제품, 전자도서, 사물인터넷(IOT)까지 확대하라!

2019년 10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1월 4일은
시각장애인의 문자, 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볼록한 6개의 점,
손으로 읽는 시각장애인의 언어인데요.
'제93주년 한글점자의 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글자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며 읽을 수 있는 점자를 사용합니다. 6개의 점으로 한글을 표현하는 점자는 1926년 11월 4일 제생원(현, 국립서울맹학교 전신) 교사였던 송암 박두성 선생(이하 송암)에 의해 반포되었는데요. 일제강점기, 한글 점자가 없어 일본식 점자를 사용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송암은 1920년 이종덕, 전태환 등 8명의 제자들과 비밀리에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육화사)'를 조직하여 한글점자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수의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 사용하는 점자, '훈맹정음'입니다.

해방 이후 '훈맹정음'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기호의 점자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47년경에는 당시 국립맹아학교의 이종덕, 전태환 두 교사와 재학생들의 한글 점자 맞춤법 수정이 이루어졌고, 1959년에는 '점자 악보기록법'이라는 번역물이 발간되어 최초로 악보를 점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온 점자연구활동은 1967년 7월 전국 맹학교 대표들이 모여 '한글점자연구위원회'를 발족하게 되면서 점자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6개의 점이 모여 한 칸을 이루는 점자(세로측3, 가로측2)는 각 점에 1~6까지의 번호를 붙여 사용합니다. 6개 점의 조합을 통해 총 64개의 점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조합들에 한글 자음, 모음 등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바로 한글점자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점자규정에서는 풀어쓰기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한글, 수학, 과학, 음악, 컴퓨터 점자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글점자를 기념하기 위한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이 되면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점자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며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 93주년 한글점자의 날을 맞이해 국립한글박물관에서 11월 4일에 기념식과 세미나, 점자 알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제93주년 한글점자의 날 기념식'에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순봉 회장,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김동복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용삼 제1차관, 국립국어원 소강춘 원장 등을 비롯한 여러 내빈이 참석했으며, 점자 유공자 포상 및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점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비장애인 역시 점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이드러너 없이 10km 완주한 마라토너

한동호 선수

홀로 길 위에서 자신과 싸우는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꿈을 향해 혼자 결승선을 도전하는 한동호 선수인데요.
이번호에서는 한동호 선수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한동호라고 합니다.

Q.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수영 대표 선수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A. 20살 대학 입학 후 시신경 위축증이라는 병으로 양쪽 눈의 시력을 다 잃었어요. 양쪽 눈의 시력을 잃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주위 친한 형의 조언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수영으로 대표 선수를 하며 운동을 하던 어느 날 트레드밀 위에서 뛰고 난 후 개운함을 느꼈어요. 그 개운함을 잊지 못해 그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면 잡다한 생각, 주변의 시선을 잊고 달리기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Q. 지금까지 출전하셨던 경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일까요?

A.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때 접영으로 은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렸다는 것도 제겐 큰 의미였고, 관객석에서 관중들의 함성소리는 다른 경기를 하며 메달을 받은 그 어느 경기보다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Q. 그렇군요.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며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 마라톤은 하체근력 중에서도 비복근을 사용해서 뛰는 종목이라 그 전 수영을 할 때와는 사용하는 근육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훈련 중 비복근 통증이 잦아 힘들었어요. 그리고 꾸준히 10km씩 뛰면서 스스로 대회 준비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훈련 또한 자신과의 싸움이니까요. 또 대회를 준비하며 매일 운동하는 것 말고도 컨디션과 식단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Q. 지난 9월 2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제5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에서 가이드러너 없이 혼자 결승선을 통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땠는지요?

A. 이번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곁에서 같이 뛰어주신 분들, 그리고 음성으로 응원해주신 분들, 많은 분들한테 우선 고맙고요. 결승선을 통과 후 가장 먼저 든 기분은 성취감이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결승선까지 스스로 통과하였다는 것이 가장 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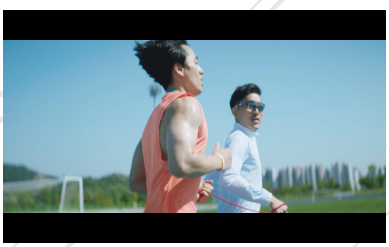


Q. 경기가 없을 때는 주로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A. 다른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럽니다. 그 전 실업팀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전 소속사에 있을 때 친한 형이나 선 · 후배들이 각지에 있다 보니 경기나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부산이나 제주도 등 각지로 여행을 주로 다니곤 합니다. 경기 앞두고 있을 때는 식단 조절로 힘들지만 그 외에는 잘 먹거든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른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가깝게는 11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국제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출전하여 42.195km 완주가 목표입니다.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록보다는 완주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와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대회가 끝나면 또 다른 도전을 위한 다른 꿈을 그려볼 예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해 그려진 미술의 세계

시각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수상작품전



이는 눈, 보이지 않는 눈,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빛나는 눈들' 그들의 눈으로 그려진
시각장애학생 수상작품전 전시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 서초구립반포도서관에서는 프리즘 프라이즈 전국시각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수상작품전이 열렸습니다.

이 전시는 전국 시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수상 된 작품을 전시한 미술전입니다. 학생들의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해 표현해 낸 색감과 작품들은 남다른 시각과 표현 방식으로 만들어 낸 학생들의 작품으로 총 11여종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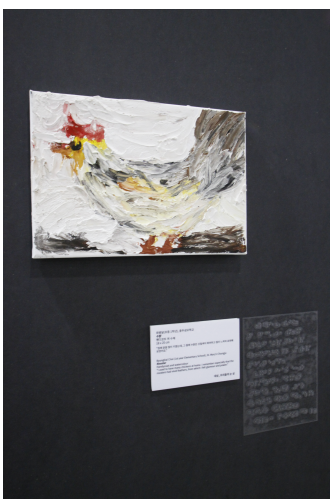
대상작 〈수탉〉은 강렬하면서도 화려한 색감과 힘이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그림을 통해 전해지는 감흥은 색깔만큼 선연해서 그림을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금세 사로잡히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수상자는 수탉의 화려하고 힘이 느껴지는 모습을 핸디코트 위에 수채화로 담아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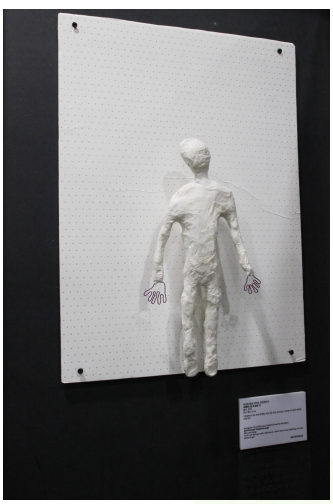
아쇼카한국상을 받은 〈우리들〉작품은 염색 한지를 통해 감정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본인들의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관념적, 개념적 대상인 이미지를 구체적인 색과 생동감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비정형적 입체 모양을 통해 자유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자신의 심리를 묘사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전시 작품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수상자들의 독창성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적 감정과 생각, 개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였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보이는 눈과 보이지 않는 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타인의 자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자아가 가진 생각,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이때 독창성은 자아를 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돋보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들의 눈 전시에서 보여준 그림을 보며 관객의 관점의 결합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예술적 감각과 표현을 느끼고 그들의 내면에 대해 좀 더 깊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느끼고 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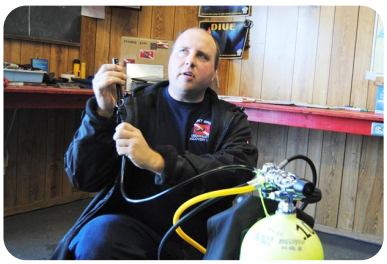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스쿠버 다이버, 레이크 이리 수중 복구 단체 맴버되다!



캐나다의 시각장애인 스쿠버 다이버 마크 프롤룩스가 최근 레이크 이리 수중 복구 단체 맴버가 되었습니다. 마크 프롤룩스는 완전히 안 보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쿠버 다이빙에 사용하는 기계식 점자 산소 게이지를 점검하는데요. 시각장애인으로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다이버들이 자신의 산소탱크에 얼마나 많은 산소가 남았는지 알아야 하며, 그 수치를 읽지 못하면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크 프롤룩스는 산소 탱크의 측면에서 튜브가 빠져나와 기계식 에어 게이지로 이어진 핀이 아래로 이동하면 그 위치로 탱크에 산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마크는 스쿠버 다이빙을 취미로 삼아 왔는데 이번 레이크 이리 수중 복구 단체의 일원으로 맴버가 된 후 직원들이 가족처럼 대해주어 이번 단체와 인연을 맺은 것 또한 인생의 행복을 더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 동영상 강의하는 시각장애인 후스나 아민



인도 서남부 출신 여성 후스나 아민은 동영상크리에이터로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영상 촬영하면 비시각장애인을 떠올리실텐데요. 후스나 아민은 시각장애인입니다.
후스나는 시각장애인 여성으로 영문학과 컴퓨터 석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동영상 강의 촬영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편집을 하는데요. 상담을 전공한 심리치료사인 그녀의 여동생 후다 아민이 촬영 및 편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컴퓨터 관련 자격시험을 보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시청자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영상은 영어와 말라얄람어 2개 언어로 진행합니다. 카메라를 다루고 인터넷만 있으면 세상과 어디서든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에 후스나 아민의 동영상 컴퓨터 교육은 그 동안 30여개 이상의 영상을 만들어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600여명의 구독자가 있으며 곧 1000명의 구독자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제40회 전국 흰지팡이 날 행사, 성황리에 개최!

지난 10월 15일, 제40회 흰지팡이 날 기념행사가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시각장애인지도자 및 가족들 4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 날 행사의 주요 내빈으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의원,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김현준 국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순봉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이 뭉쳐 시각장애인복지의 밝은 미래를 만들자는 취지의 대회사로 내빈과 참석 인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기념식에서는 자립과 성취의 상징인 흰지팡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흰지팡이 헌장 낭독과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내빈의 참석과 더불어 전국의 시각장애인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흰지팡이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중증시각장애인 전통문화체험캠프 실시

지난 10월 15일 화요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GKL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역사를 배우고, 지금을 느껴, 내일을 바라보자'는 주제로, 중증시각장애인 전통문화체험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시각장애인 20명과 안내인 15명, 직원 3명, 모두 38명이 함께한 이번 캠프는 양평원조외갓집체험마을에서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했는데요. 가을 추수, 인절미 만들기, 숲길체험, 메밀총떡 만들기, 고구마 캐기, 송어잡기 등 한 손에 가득 쥐어보는 풍성함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을의 정취를 한껏 즐기고 전통체험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습니다.



제93주년 한글점자의 날 기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제93주년 한글점자의 날을 맞이해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알알이 박힌 한글점자 93년, 백년의 미래도 우리 손으로!'라는 주제로 기념식 및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글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칭송되는 송암 박두성(1888~1963)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인 점자를 창안해 반포한 1926년 11월 4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이번 기념 세미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점자체험부스를 이용해 점자도서 및 인쇄물 전시, 점자 빨리 찍기 대회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점자를 접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2019 가을음악회 성료

지난 10월 18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과 함께 한 2019 가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의 지원으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진행된 가을음악회는 국악, 해금, 오카리나, 통기타, 하모니카, 우쿨렐레, 플루트, 색소폰, 합창단 등 총 9팀 56명의 연주단이 멋진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날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공연은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 연주와 노래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며 가을을 만끽하게 했는데요.

음악회 참석자들은 매년 회를 거듭할수록 시각장애인 연주단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은주 해금 연주자는 "처음에는 가볍게 취미생활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직접 무대에 올라 자부심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게 되니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약 비준 4년을 돌아보며, 마라케시 조약 토론회 개최

지난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우상호 국회의원, 신동근 국회의원의 공동으로 '마라케시 조약, 국내 이행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은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라는 지식재산권 전문 국제기구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상설위원회에서 논의되던 저작권 관련 여러 주제들 중 하나인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그 중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을 국제규범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비준해 이듬해 9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9월부터 발효가 되었음에도 국내 저작권보호 개념과 상충되는 문제 탓에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을 통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이행 여부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쉬움은 많습니다.
이번 토론회 '마라케시 조약 안내서' 한국어판 번역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가 2015년 비준한 마라케시 조약의 내용과 의의를 널리 알리고, 국내 이행 상황과 국제적 변화 추이를 점검함으로써 조약 비준이 국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시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무료로 실시한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지난 5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지원 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오는 12월까지 서울 · 경기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는 12월까지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 개정에 따라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며 불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시련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제2019-22호)으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사들이 직접 무료 교육을 신청한 사업체로 찾아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799-1032, 1033)로 문의하면 되며 12월까지 사업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VOICEYE
voiceye.com

안내인과 동행한 시각장애인을 만날 때

안내자를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간혹 안내자에게만 눈인사를 한다거나 모든 일처리를 대신하게 한 경우는 없는지요? 안내자의 역할은 분명 시각장애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도와주기 위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은 통역이 필요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과 나눠야 할 이야기를 안내자를 통해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큰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단지 보는 것만이 불편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대표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신한은행 140-001-911645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247-890007-44704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9년 11월 232호

발행일 2019년 11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홍순봉 편집 김나율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31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